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음 7월 21일)

제2357호

전주매일

비수술적 착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지네인 신경외과 의문 원장 곽 경 문 합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월 6번지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정부, 탄소섬유 매년 1조원 집중 지원 약속

문 대통령, 전북 방문

→ 관련기사 2면 · 3면 · 4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성능 탄소 섬유를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기업인 (주)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을 찾 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수소차 연료탱크 제조에 쓰이는 탄소 섬유는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전략 물자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주를 찾아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개 최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다.

효성은 지난 2011년 탄소섬유 국산화에 성공하고 양산을 개시했으며 국내최초로 고성능 탄소섬유를 개발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다.

이번 협약식은 해당 기업의 증설 투자 계획에 따라 전북도와 전주시가 보조금 지원, 인허가 신속 지원, 인프라구축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정하는 성격의 자리다.

"탄소섬유는 철을 대체하는 미래 제 조업의 핵심소재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그 자체 로 고성장 산업이며 연계된 수요산업 의 경쟁력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성의 담대한 도전과 과 감한 실행을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 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축하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소재인 탄 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 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탄소섬유 등 100여개 핵심품목 국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수요기업 및 탄소소재기업 대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전주시-효성 '신규투자 협약식' 참석 수요-공급 기업 협력 모델 구축… 성장 생태계 육성 문 대통령 "핵심소재 특정국가 의존도 줄여야" 협약식 이후 효성 1라인 생산공장 등 방문 격려

산화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이 상을 집중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 는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 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에 따른 것 이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우주·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강 도, 고탄성 탄소섬유 개발을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구축해 국내 탄소섬유의 성장 생태계를 육성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다"며 "향후 10년 간학부, 석박사, 재직자 교육을 통해 약9000명 규모의 탄소 연구인력과 산업인력을 배출해 탄소섬유가 중소기업에이르기까지 우리 산업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 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 를 줄여야 한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 욱 높이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경제와 같은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섬유는 미래 신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 첨단소재다.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며 "오늘 탄소섬유 신규투자가 우리 첨단 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다 양한 분야의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마 중물이 되기를 바라다"고 했다.

효성첨단소재 기업은 탄소섬유 생산 규모를 현 2000톤에서 오는 2028년엔 2만4000톤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다.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 하여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현재 1개 라인에서 10개 라인으로 확대할 예정 이다

탄소섬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MOU(양해각서) 체결도 이어졌다. 이 번 투자협약은 6800억원 규모로 3~10 라인 증설과 관련한 신규투자에 대한 협약이다. 2500억원이 투자된 1라인은 현재 가동 중이며 700억원이 투입된 2 라인은 내년 1월에 준공된다.

또 탄소섬유 공급기업인 효성첨단소 재와 수요기업들은 수소차 저장용기, 항공기 부품, 로봇용 탄소섬유 등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산업부는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게 구독을 위에 시원이기도 썼다. 수요기업인 일진복합소재(수소 저장 용기), KAI(항공기부품), SK케미컬(프 리프레그), 밥스(로봇팔), 삼익 THK(로봇장치) 등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식 행사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이개호 농립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 장, 조현준 효성 회장, 정동영·안호 영·이용호 등 지역 국회의원, 지역 탄소섬유 관련 기업 대표와 주요 대학 탄소공학과 및 신소재학과 학부·대 학원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식 종료 후 문 대통령은 효 성첨단소재 공장증설 현장과 현재 가 동 중인 1라인 생산공장을 방문해 임 직원을 격려했다. 또 탄소섬유 생산 공정 및 탄소섬유를 이용한 수소 저장 용기 생산과정 등을 시찰했다.

/김진성 기자

도・전북신보, 추석명절 소상공인 긴급자금 190억 지원

내달 20일까지…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은 올해 추석명절을 앞두 고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19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추석명절 소상공인 긴급자금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을 9월 20일까지 시행한다고 20

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 상공인들의 자금지원에 집중해 이들 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보증은 9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으로 전북신보는 기존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를 크게 줄여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신보는 한 달 동안 본·지점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기 존에 7일 정도 걸리던 보증처리일수를 3일로 단축해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기 로 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집에서도 은행거래 가능' … 어르신 대상 디지털 금융 교육

완산구는 어르신 등 정보소외계층 의 불편과 고립을 줄이기 위해 디지 털 금융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통장이 없어도 금융 거래가 가능한 시대를 만들고, 통장 발행비용 절감 및 분실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부작용 등을 막 기 위해 내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 급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에, 완산구는 올해 스마트폰 활용 법을 주제로 매월 1차례씩 실시해온 시민정보화교육을 오는 9월부터는 '디지털 금융생활'로 주제를 변경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triangle 인증서 발급·활용 \triangle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의 이해 \triangle 계좌 조회 및 이체 \triangle 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기본적인 디지털 금융 사용방법이다.

구는 9월 16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월 1회 10시간씩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 시하고, 대상을 점차 확대해 디지털 금 융에서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만 든다는 구상이다. /송호철 기자

